이베로아메리카 제3집(2001년)

칠레 정치체제변화와 여성정책*

이 순 주**

Ⅰ. 들어가는 말

국가의 정책이 여성의 삶과 지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문제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나타나는 중요한 계기는 유엔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평등, 발전, 평화라는 주제로 세계 여성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10년 후인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157개국의 대표가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선언문'을 채택하고 여성의 동등한 참여 달성을 위한 여성의 고용, 임용, 승진의 보장과 함께 모든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의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구사회의 여성들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소위 '제1여성운동'을 통해 투표를 통한 참정권이 획득된 이후, 1940-50년대에 여권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0-70년대의 '제2여성운동'을 통해 정치권내부로의 진출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노력들은 여성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여성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칠레에서의 여성의 참정권획득을 위한 노력은 20세기 초반에 매우 활

* 이논문은 2001년도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임 (2001.5.26).
** 영산대학교 디지털경제무역학부 겸임전임강사

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1935년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1949년에는 일반투표권을 획득했다. 이후 정부정책에서도 여성을 초점으로 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관한 논의는 민주화 과정에서부터 최근 10여년간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칠레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의 지속성과 차이점을 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 관련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중도파적 성향의 기독교민주당의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Montalva, 1964-1970)정권기, 사회주의 아옌데(Salvaor Allende Gossenes, 1970-1973)정권기, 권위주의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1973-1989)정권기, 그리고 민주화이후의 인민연합정권기로 나누고자 한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탄생한 아옌데 정권은 혁명에 의한 동구의 사회주의 정권과는 다르지만 정권의 목표가 점진적 사회주의 국가건설이었으므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국가에 대한 연구를 비교사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서유럽국가나 미국과 같은 선진적 여성정책의 사례들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런데, 칠레의 사례는 한 국가가 사회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정부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례로서 각기 다른 국가의 체제들을 비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에서 체제변화가 어떠한 여성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에두아르도 프레이 정권

1960년대 중반, 에두아르도 프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기독교 민

주당(Partido Democrático Cristiano, 이하 기민당)은 중남미 내에서의 사회민주당이라고 알려질 만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민만식, 1971: 190). 칠레 기민당은 1930년대 젊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이상주의적 일탈운동의 하나로서 'Falange Nacional[1]'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57년에 기민당으로 개명했다. 이들은 1940-50년대에 칠레 내 어떠한 정당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식인그룹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 설립자 중 일인인 에두아르도 프레이는 수많은 양질의 저서를 통해 미주대륙내의 기독사회주의의 주요원칙수립자로도 인식되었다. 초기 기민당의 지지자들은 대체로 중간계급이었으나 점차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했다.

기민당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사회경제조직으로서의 부적절한 형태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를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자본주의는 무자비하고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비판했다. 그들이 건설할 체계는 '노동과 경영의 이익이 같아지는' 공산사회라는 것이다. 그들은 맑스주의의 계급투쟁 불가피론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경영에 노동부문이 참여함으로써 계급관계가 조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Beatty, 1965:24). 프레이가 대표하는 기독교 민주당은 칠레 국민들에게 좌익과 우익의 대안으로서 인식되었으며, 다양한 성향의 지지자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내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지자를 확보하게 되었다(Fleet, 1985:78)[2].

기민당은 칠레에서 완전히 사회화된 경제가 아니라 민간, 공공, 조합의 소유가 혼합된 체계를 기대했다. 사적부문이 경제에서 역동적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의 지원과 압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Beatty, 1965:23-25).

---

1) 'Falange Nacional'을 적당한 번역용어가 없어 원어대로 사용함.

2) 기민당 내에는 프레이와 같이 광범위한 연대를 추구하는 그룹과 급진적 노선을 유지하면서 좌익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이러한 기민당 내의 분파가 프레이 행정부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 된다.

프레이의 슬로건은 '자유속의 혁명'으로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프레이 행정부는 구리산업에의 참여(Chilenización)[3], 농지개혁과 이를 통한 10만개의 농장 개장, 세제구조개혁, 6년간 36만 가구의 주택건설 및 보급, 전국민교육, 임업과 수산업 진흥, 구리 제련소 추가 건설 등의 공략을 제시하면서 당선되었다. 프레이는 자신의 정당 뿐 아니라 사회주의자인 아옌데에 반대하던 자유주의, 보수주의, 급진주의정당과 무소속 자들로부터 56%이상의 지지와 여성유권자의 63%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Kinsbruner, 1973:154; Beatty, 1965:347-348).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레이와 아옌데에 대한 여성의 지지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 1964년 9월 4일 칠레 대통령선거결과 (성별득표수 및 비율)

	남 성	여 성	합 계	
Eduardo Frei Montalva(PDC)	673,678	744,423	1,418,101	55.7%
Salvador Allende Gossens(PS)	606,356	375,766	982,132	38.6%
Julio Durán Neumann(PR)	68,498	56,614	125,112	4.9%
기 권	4,696	2,721	7417	0.8%
무 효	9,476	5,780	15,256	
합 계	1,362,704	1,185,304	2,546,008	100%

참고:http://members. tripod.com/~sdonoso/42a.html.

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번영과 개혁을 내세우며 집권한 기민당의 가장 중요한 공략이 '구조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나 관계의 재설정 혹은 개혁보다는 생활수준 향상, 투자와 성장 등에 중점을 두었다. 기민당 정권 당시 성장과 개혁은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은 내수시장과 인적자원의 확대와 활용이 있어

3) 프레이는 광산운영과 생산에 대한 참여를 주장했으나 국유화를 바라지는 않았다.

야 가능하고, 또 강력한 경제발전의 기반 속에서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근대화와 모든 수출이 장려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세제 개혁과 신용대부, 투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집권 초(1966년-1967년)에는 임금이 상승했으며, 사회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빈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Fleet, 1985:84).

이러한 정부의 사회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프로그램도 구상되었으며, 그것이 CEMA의 조직화였다. 이는 칠레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정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기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및 지원이 이루어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주부가 중심이 된 근린생활 공동체활동은 프레이 행정부의 '민중을 조직하려는 개혁정치 프로젝트'의 하나인 'Promoción Popular[4]'라는 프로그램(이남섭, 1994:57)을 통해 흡수되었다. 'Promoción Popular'는 프레이 대통령이 근린 공동체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경제문제를 비롯한 식수, 위생,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그룹(self-help group)으로 변경하도록 정부가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며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구중의 하나가 어머니센터(Centros de Madres, 이하 CEMA)였다. 원래 CEMA의 기원은 1940년대에 여성투표권 획득운동과 동시에 창설된 여성민간단체인 CEMAs(Centros de Madres)다. 이 단체는 농촌과 도시빈민여성들의 공동체조직으로 출발했다. CEMA의 조직화는 기독교 민주당내 신설된 여성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CEMA 운영을 통해 당의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인 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는데, 최초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 수행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프레이 정부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제도화를 통해 여성운동을 정부에 대한 압력

4)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중홍보', 혹은 '대중진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명을 한국어로 옮기기는 어색하여 원어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남섭 교수는 '대중진흥'을 사용했다.

세력에서 정부의 프로그램 내에서 통제 가능한 세력으로 변경시켰다(Oppenheim, 1988: 27; Cleary, 1987: 118). 'Promoción Popular'에 참여한 조직은 1만 5천개에서 2만여개에 달했고, 그중 8천여개가 CEMA에 소속되었으며, 여성회원수는 40만 여명에 달했다(Fitzsimmons, 1995:55). 1968년 8월 '공동체 조직과 근린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통해 CEMA가 공식기구로 인정되면서 프레이 행정부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Del Gatto Reyes, 1989:2 ; Cleary, 1987:117-118).[5] CEMA는 빈민여성구제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했다. CEMA는 빈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한 실제적 요구들에 대한 충족을 통해 프레이 행정부가 칠레 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CEMA의 주요 기능은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교육, 육아교실 운영 등의 내용이었다. 프레이 정부는 CEMA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또한 1960년대 당시 농촌지역의 수출농산물재배를 위한 여성의 노동참여[6]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과 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인식시켰다. 여성들은 CEMA를 통한 신용대부를 통해 재봉틀을 비롯한 다양한 가재도구를 구입하고, 가족지출을 조정할 수 있었다. CEMA에서 제공되는 주요 교육과정들은 가사기능과 페인팅, 바느질, 미용기술 등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Stephen,1997:247).

이 외에도 프레이 행정부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법률위원회, 그리고 미주국가기구산하의 범아메리카 여성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la Mujer)의 권고로 1969년에 대통령 직속 여성사무

5) CEMA의 공식기구화는 기민당 내 여성부를 통해 제시된 프레이대통령의 선거공략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6) 칠레 여성들의 수출농산물경작(특히 과일)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 대규모로 이루어 졌으며, 1987년도에는 과수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70만에서 100만 명에 달했다.

국(Oficina Nacional de la Mujer)이 구성되었으나 단 1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체되었다.

최초의 여성정책 수행기구를 탄생시킨 프레이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권익보호보다는 사회복지요구의 충족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여성단체의 조직화와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사회복지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Ⅲ. 아옌데 정권기

인민연합(Unidad Popular)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는 구리, 초석, 철광 등의 산업과 은행등의 국유화, 40헥타르 이상의 농지몰수, 입법과 사법권의 개혁, 모든 칠레 어린이에 대한 우유 배급 등을 공략으로 내세우면서 3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Galdames, 1995:312-313). 인민연합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확대를 강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현재의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대지주(Latifundio)권력과 국내외 독점자본의 권력을 종식'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두었다.

아옌데가 집권하면서 대규모 광산과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은행 등이 국유화되었다. 특히 구리산업부문에 대한 국유화는 1971년 7월 11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입법화함으로써 아옌데의 국유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남승환, 1999:41)[7]. 아옌데의 집권 첫해에는 임금을 상승시키고 중간 및 노동자계급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그의 집권 2년째부터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국내경제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71년과 1972년 사이 구리의 국제

7) 이는 정파와 관련없이 외국인 소유에 따른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팽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장가격하락으로 인한 국제수지적자,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차관 중지,[8] 외국인의 사적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외환보유고 고갈과 재정난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급격하여 1973년 중반에는 300%를 초과해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수준 아옌데 집권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Loveman,1988:298). 이러한 경제위기의 심화로 파업과 공장폐쇄가 잇따르고 장기화되면서 생산중단으로 인한 물자부족사태로 이어지고 사회 내 불만은 고조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인민연합 내에서 아옌데 정부의 개혁정도를 둘러싼 내분을 비롯하여 72년부터 기민당과 국민당(Partido Nacional)이 중심이 된 야당의 입법개혁저지를 본격화하면서 혼란이 심화되었다.

1970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난 여성의 아옌데에 대한 지지는 알레산드리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민연합을 포함한 좌파 지도자들이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에서 기인했다(Townsend, 1993:48. Mariana & others, 1986:32-34).

민주적 선거를 통해 최초로 수립된 사회주의 성향의 아옌데 정권기(1970-1973)에서는 여성들의 많은 사회활동이 기대되었다. 아옌데는 집권초기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 빈민여성들이 자신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여 근린여성의료센터와 무료우유배급, 2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의 탁아소 설치, 사생아와 이혼의 합법화, 정부내 가정전담 부서의 설치(Townsend,1993:48)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CEMA를 COCEMA(Confederación de Centros de Madres)로 변경하고 지원확대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족부(家族部)' 신설이 시도되었다[9].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

8) 이는 알렉산드리 정권과 프레이 정권기부터 누적되어온 칠레의 대외채무의 상환압박, 미국의 전력비축용 구리의 국제시장으로의 방출에 따른 구리가격하락, 미국의 수입금지정책에 의한 수출감소에 기인했다. 또, 미국정부는 쿠바에 이은 중남미 내 사회주의 정권의 아옌데 정권에 대한 우려와 구리광산 및 외국인 소유기업의 국유화 등에 대한 반대로 칠레에 대한 원조를 중단시켰다.

9) 입법화단계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무산되었다.

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옌데 정권 당시 평균 GDP성장률이 0.3%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였고,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실시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근원적인 요인은 아옌데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데 있다[10].

아옌데 정권기에 노조활동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한다. 노조가입율이 1971년에는 27.4%, 1973년에는 32.3%정도로 증가하고, 당시 칠레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자 중앙연합(CUT,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에 가입한 조합은 1970년도에 87개에서 1973년에는 130개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주의 정권 내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Fitzsimons,1995:55-56)[11].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1971년 12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반아옌데 정권운동과 식량부족에 대한 항의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 시위는 소위 '빈 냄비 행진'이라고 불렸고, 노조들이 합세하면서 아옌데 정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되었다[12]. 산티아고 내의 좌-우파간의 정

10) '내가 여성을 말할 때는 항상 아내/어머니를 떠올린다. 내가 여성을 말할 때는 핵가족 내에서의 여성을 의미한다. (여자)어린이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여성(개념)의 연장이다." Agosin(1993) p.4에서 재인용.

11) 1972년 10월에서 1973년까지 칠레국민들의 생계비는 72%가 증가했고, 3천여종의 생필품 중 5백종이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2) 노동자 계급 뿐만 아니라 우익단체들-Patria y Libertad, PROTECO, Soberanía, Orden y Libertad(SOL) 등, 농지와 공장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들-의 동원화와 반정부활동이 활발해 졌다. 1972년 10월에는 상점원, 학생, 은행원,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도시지역 근로자들과 일부 농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또 정부소유의 운송회사 창설을 약속 받았던 4만 여명의 개인 트럭사업자들은 정부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를 벌였고, PDC와 PN이 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UP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되었다 (Loveman,1988:302-306).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민의 의석이 43%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치적 대립과 반복되는 소요사태와 의회 내에서의 UP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는 제도적 안정, 시민사회의 평화, 안보, 발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는 군부의 개입[13]을 야기하게 된다.

'점진적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아옌데 정권의 여성정책은 빈민여성으로부터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해진 바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예를 들면 탁아소의 운영, 모성권행사에 대한 여성권리 인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CEMA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프레이 정권기와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의 보조적 여성의 역할에만 여전히 한정되고 있었으며, 정치, 경제적 혼란의 반복으로 효율적인 정책이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Ⅳ. 피노체트 정권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군부정권은 신속히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수립에 착수했다. '국가재건"을 내세우고 등장한 군부는 쿠데타가 맑스주의와 계급투쟁의 척결, 질서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과격한 탈 동원화, 탈 정치화,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 군부는 인민연합을 비롯한 아옌데 추종자들을 숙청하고 의회폐쇄, 언론장악, 대학 내 좌익분자의 색출, 서적소각,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불법규정, 노조활동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국가에 대한 군부의 확고한 통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여성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되었다. 칠레사회내 군부정권을 지지

13) 1973년 6월 군부에 의한 첫번째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칠레 내 혼란은 극도로 악화되어 PL, PDC와 보수학생세력 등은 반정부 시위를 통해 아옌데의 사임 혹은 군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미국 국회도서관 Web Page, 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 (DOCID=c10041)참고.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자원단(Voluntariado Nacional)과 여성사무국(Secretaria Nacional de la Mujer)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CEMA는 재조직되었다. 이 기구들은 모두 과거의 복지적 차원의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성의 정치적 동원화에 목적이 있다. 이 중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자원단인데, 전국단위로 총 49개에 5만 2천여명의 중산층 여성들과 일부 칠레거주 외국인 여성이 소속되어 있었고, 주요 기능은 빈민공동체에서 자체 교육부분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군사체제에 유리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피노체트의 부인인 루시아 이리아르트(Lucía Hiriart de Pinochet)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원조국민기금(Fundación Nacional de Ayuda a la Comunidad, 1975년)은 국민자원단을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루시아 이리아르트의 주도하에 군사위원회 소속장교의 부인들이 각 1개의 자원단을 책임지고 있었다(Del Gatto Reyes, 1981:3-5).

CEMA에는 1973년 전국에 3만여개의 지부가 등록되어 있었다. 쿠데타 이후 해체되었다가 1975년 루시아 이리아르트를 대표로 하여 재구성되어 칠레사회내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명목상으로는 '탈 정치화'를 전제로 '가족수호자'라는 명목으로 군부정권의 선전활동을 수행했다. CEMA에는 전국에 1만여개의 센터와 24만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었고, 1984년도에는 18세 이하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CEMITAS를 구성[14]하여 710개의 CEMITAS에 만2천 753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국민자원단은 중산층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CEMA는 빈민층여성을 대상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지지기반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CEMA를 통한 교육은 여성들에게도 '국가안보', '애국' 등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입

14) CEMITAS는 CEMA에 -ita라는 접미사를 붙여 소녀들의 센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루시아 이리아르트는 CEMITAS를 '칠레의 미래'로 평하면서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피노체트 정권이 상정한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인 여성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으로 가족과 국가에 대한 희생적인 여성의 봉사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사무국이 교육용으로 배포한 교재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 "여성의 임무와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들에게는 천부적인 가치를 통해, 전 삶을 통해 수행해야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겸허한 임무가 있다. 갓 출생한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겸허한 임무다. 왜냐하면 육체적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 없이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대한 창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가정에서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임무에 대한 정신은 봉사의 수행: 어린이의 기저귀를 바꾸는 여성의 부엌에서의 역할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시점에서 우리 여성들의 조건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동기다."(Silva, 1986:16에서 재인용)

피노체트 정권은 가족을 사회의 최소단위로 파악하고 국가전체를 하나의 거대가족(gran familia)으로 개념화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국가전체로 확대시켰다[15]. 이로서 여성에게 가장 우선적인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로, 그리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모두에서 박애적이고 희생적인 역할을 강조했다(Waylen, 1992:306).

1980년 군부의 통제하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제정으로 피노체트는 1989년까지의 대통령임기를 보장받고, 추후 재집권여부는 1988

15) 피노체트는 가족(칠레)의 가장(아버지)이고, 사회(자녀들)를 보호하고 이끌어나간다. 칠레 여성들(애국적 아내와 어머니)은 가장의 지침(질서)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칠레인(자녀들)이 피노체트의 절대적인 권력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듯이 흠모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칠레가 '조화'와 '평화'속에 살 수 있는 것이다. Eda Cleary, *op.cit* p.153 에서 인용. 필립 옥소른은 이러한 군사체제의 정치적 동원화가 역설적으로 반 정부운동을 위한 동원화의 핵심이 되었다고 본다. Philip Oxhorn,(1994)참고.

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이 가결되었다. 이 헌법의 통과로 피노체트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에서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정책의 결과는 칠레 사회전반에, 특히 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는 높은 실직률과 사회재정지출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직률은 1972년도에는 2%에서 1976년에는 17%에 달했는데, 정부는 고용개선책으로서 '최소고용프로그램(Programa de Empleo Mínimo)'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자에게 매달 20불의 생활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다량의 '조직화된 실직자(Cleary, 1987:95 재인용)'를 양산했다. 또, 1979년 신노동법 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은 집단교섭권과 파업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집단교섭은 공장에서만 가능했고, 회사는 교섭연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파업은 60일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파업시작 30일 이후에는 회사가 파업참여노동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회사의 제의를 수락하느냐, 실직하느냐 중 양자택일만이 가능했다. 노조대표 선거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대표후보는 과거 10년동안 대표에 재임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로서 사실상 새로운 노동법은 노조를 원자화하고 허약하게 만들었다(Loveman, 1988:339-343; Chuchryk, 1989:152)[16].

16) 신노동법은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정부는 선전했으나 기본적으로는 1975년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칠레의 노동운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욱 더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노동법을 비롯하여 일명'7대 근대화'계획을 통해 경제개혁정책을 정치, 사회전반에 확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실상은 이 헌법은 반정치, 반 마르크스주의와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새로운 사회질서라고 하는 내용도 스페인 전통의 가부장적인 가족을 사회위계질서의 기본으로 파악하였고, 모든 시민에게는 조국의 영광, 주권수호, 국가안보의 유지, 그리고 칠레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헌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칠레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의 요구 내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이었다.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2가지의 주요 조항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가지는, 1973년 사회주의 입법에서 효력을 가졌던 모성권 행사에 대한 여성권리가 제거된 것으로서, 임산부에게는 계약기간만료, 노동종료 등의 명분으로 해직 가능케 했으며(Cleary,1987:100), 고용주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탁아시설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도 삭제되었다(Chuchryk,1989 :153).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연령을 55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노동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의 사회재정지출은 사회보장[17]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 교육, 보건, 주택 등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 또한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제공했다[18].

빈곤과 대량실업, 그리고 산업부문의 감소로 빈민여성들은 남편대신 가족부양을 위해 칠레사회내의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되었다. 또 여성들이 주축이 된 대중경제기구(Organizaciones Economicas Populares)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르삐예라스(Arpilleras)'와 '오야스 꼬무네스(Ollas Comunes)', '꼼쁘란도 훈따스(Comprando Juntas)'[19]가 가장 대표적인 단

를 주요정책수립기구로 정하고, 군부에 의해 통제되는 지방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지명된 지역대표가 지방행정 및 교육개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군부지배체제를 강화했다.

17) 사회보장제도 중 연금개혁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 칠레정부는 1920년대부터 점차 사회, 경제부문으로 확대되어 오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였던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다. 이는 1973년 이후 피노체트 정부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기존연금제도의 대규모 적자, 불평등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와 경제개혁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의 축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칠레의 연금개혁과 그 성과 등에 관해서는 선우 건(1999), Patricio Mujica and Osvaldo Larrañaga,(1993) 참고.

18) 1974년도의 지출을 100이라고 할 때, 1982년 주택부분의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주택부족상황을 야기했는데, 1970년에는 주택 부족분이 40만 가구였던 것이 1984년에는 9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1985년 3월의 지진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 정부는 지진 후에도 주택건설을 위한 비용을 증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택부족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이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에게 더욱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Cleary(1987) p.101-102, Hausmann(eds.)(1993) p.24 표 참고.

19) Arpilleras: 삼베의 일종, Ollas comunes : 공동부엌, Comprando Juntas: 공동구매

체들이다. 이들은 도시주변공동체에 기초한 근린빈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유형이다. 집단 생존 전략으로서 어린이 식당, 공동부엌(ollas comunes), 그리고 수공예 공방 등을 통해 경제적 수입원을 확보하고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르삐예라스는 여성들이 실로 직물을 짜거나 옷을 만들어 팔아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오야스 꼬무네스는 하루 한끼라도 따뜻한 식사를 많은 빈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며, 꼼쁘란도 훈따스는 급격한 생필품의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하나를 함께 사서 나누어 쓰기 위한 단체였다(Miller,1992:190). 이러한 단체들은 1982년 광역 산티아고와 그 주변지역에 495개였던 것이 1985년에는 산티아고에만 1,125개에 달했다.[20]

이러한 근린 빈민구제 단체들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목적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 단체를 통해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자체능력계발을 위한 자율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여성들은 점차 정치적 현실뿐만 아니라 칠레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V. 민주화이후

민주연합정부의 여성정책은 군사정권기의 여성운동을 통해 표출된 여성의 요구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Molina, 1992:4). 1980년대 중반부터 칠레여성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반 독재운동에 참여해왔는데,

20) 산티아고 시의 Ollas Comunes는 1982년(34개), 1985년(232개) ; Comprando Juntas 1982년(57개) 1985년(232개); Arpilleras 1982년(151개), 1985년 (331개)로 증가했다.

1986년 개최된 시민회의(Asamblea de la Civilidad)는 처음으로 공식성명발표에 여성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 여성이슈를 군사독재반대와 연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 여성대표가 사회의 한 구성분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직화된 주부들, 여학생, 여성노동자, 여성전문직종사자 등의 여성들이 수년간 반독재운동, 인권보호,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의 참여 등에 있어서의 주요 역할비중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여성의 요구는 1) 가족구조의 민주화 2) 모든 정치, 사회조직에 대한 여성의 참여 지원 및 장려 3) 법앞에서의 평등 4)교육과 노동의 기회평등, 5)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의 제거에 관한 유엔에서의 합의 인준 등이었다.

민주연합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제거협약'을 인준했으며, 이 협약의 이행으로 1991년 여성정책전담 주무부서인 SERNAM (Servicio Nacional de la Mujer)을 창설[21] 시켰다. SERNAM을 통해 헌법의 평등권 개정, 교육과 고용에서의 평등, 가내폭력, 성희롱 등의 예방, 여성가장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제정 등이 시도되었다(Frohmann and Valdés, 1993:19-20).

그러나 최초의 공식적인 여성정책전담기구인 SERNAM은 다시 여성운동의 표적이 되었다. 군사정권기에 여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22]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했

---

21) SERNAM Web Page, "Acerca del SERNAM", http://www.sernam.gov.cl/acerca -sernam.htm; SERNAM의 창설목적에 관해서는 Mujeres: Ciudadania, Cultura, y Desarrollo en el Chile de Los Noventa, , Documento Preliminar, Beijing, 1995. p14 참고. SERNAM은 현재 전국 13개의 주에 1개씩의 지부를 두고 있다. SERNAM web page, 'Estructura Regional',http://www.sernam.gov.cl/estruc_region.htm

22) CNMD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마리아 안토니에따(Maria Antonieta Saá)가 산티아고 최대 노동자계급 거주지역이었던 꼰찰리(Conchalí)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입법부에는 하원내의 총 7명의 여성 중 아드리아나 무뇨스(Adriana Muñoz)와 라우라 로드리게스(Laura Rodríguez)가 오랜 여성운동을 해왔던 인물들이다.

다(Frohmann and Valdés,1993:24). SERNAM은 여권신장과 관련한 여러가지 법안들-가내폭력, 노동권, 이혼, 치료학적 낙태, 결혼법 등-을 입법부에 제시했으나 대부분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여성관련 법안들이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칠레의 입법부내 여성의 참여율은 CEPAL이 조사한 중남미 국가들 중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20개국 중에서 하원은 13위, 상원의 경우는 18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있다(CEPAL, 1999:63)[23]. 이러한 저대표성은 칠레사회내의 여성의 역할범주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의 지속, 칠레 헌법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들[24], 그리고 정당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지속, 여성운동의 응집력 약화와 여성지도자들의 경험부재에 따른 미약한 정치적 협상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칠레 사회가 이러한 여성의 역할범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카톨릭적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형성된 여성에 대한 이미지[25]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점과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부정권기의 정치 이데올로기 내에서의 여성역할 범주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권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군부정권에 대한 반대가 곧 여성억압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정당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도 군부정권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었던 여성에 대한 역할이미지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이 정당의 정책결정을 하는 구성원에 포함될 경우라도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남편의 의견이 여성의 의견에 결정적이거나

그러나 라우라는 1992년 사망으로 그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아드리아나는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1993년 재선에 실패했다.

23) 표15 '양원제 국가들 중 입법부에서의 여성의 참여, 최근 선거' 참고.

24) Iniciativas para la Democracia, Educación y Acción Social,(1996) 참고.

25) 이에 관해서는 이순주(1999) 참고.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민간정부로 바뀌면서 군부정권기에 권력층에 진입하지 못했던 엘리트들이 정당내에도 권력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권력으로의 진입에서 소외되었다.[26]

SERNAM의 보수적 정책수립에 대한 반감으로 칠레사회내의 광범위한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좌파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을 꺼리게 되었다(Jaquette, 1994:7). 이러한 상황은 칠레 내 여성운동의 다변화와 이슈의 다양화와 함께 여성운동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SERNAM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SERNAM의 역할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전후로 하여 다시 매우 활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정권수립 이후 민주연합정부의 칠레여성정책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아일윈(Patricio Aylwin, 1990-1994)집권기에서는 여성정책전담기구인 SERNAM 창설을 통해 정부내 각 부처에서 실시되어온 여성관련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두번째 단계로,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Ruiz-Tagle, 1994-2000)정부는 '칠레여성을 위한 평등기회 구상: 1994-1999(Plan de Igualdad de Opportunidad para las Mujeres Chilenas, 1994-1999)'이라는 종합 여성정책 입안서를 제시하여 통합적 여성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했다[27]. 칠레정부는 이러한 정책입안서가 여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수립방향과 각 부문의 이행방

---

26) 칠레의 민간정권 수립이후 권력과 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Eugenia Hola and Gabriela Pischedda(1993)참고.

27) 프레이 정부의 SERNAM을 통해 만들어진 이 정책입안서는 1) 남녀평등권 수호를 위한 법개정 2)모든 유형의 가족을 위한 기회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 제공촉진 3)교육과정및 지식의 이전과 생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촉진 4)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원적인고 비차별적인 이미지 조장 5)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진입촉진과 지위향상 6) 여성보건상황의 개선 7)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정치-사회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8) 평등기회 정책의 평가와 지속 및 적용을 위한 공공단체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설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삶의 질적 향상과 지위향상에 상당히 의미있는 진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후속 계획서를 제시했다. 이것이 민주연합정부의 세 번째 단계의 여성정책에 해당된다. '남녀평등기회구상 2000-2010'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향후 10년간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에 있어 여성의 참여확대와 정책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증대시킨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2000-2010 구상은 1)평등의 문화, 2)여성의 권리 향상 및 실현의 보장, 3) 정책결정과 권력구조에의 참여, 4)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빈곤의 극복, 5) 삶의 질의 향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안녕, 6)젠더에 초점을 둔 공공정책 등을 큰 주제들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 구상과 1994-1999년 구상의 차이는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 각 수준, 즉, 소규모 행정단위수준,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28].

Ⅵ.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칠레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에서의 정치체제변화에 따른 여성정책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각 정치체제변화에 따른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중도파적 성향의 기독교민주당정권의 여성정책은 계몽과 교육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복지요구사항들에 대한 자체해결을 위해 여성단체를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CEMA를 통해 여성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부에 대한 압력세력을 통제가능한 세력으로 변경시켰다. 점진적 사회주의건설을 목표로 했던 아옌

28) SERNAM Web Page, "Plan de Igualdad de Oportunidades 2000-2010," http://www.sernam. gov.cl/plan_igualdad/plan_igualdad.htm.

데 정권에서는 CEMA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는 했으나 지원내용은 프레이 정권기와 별 다른 차이를 가지지 않았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고,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실시된 바 있는 육아 등의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일부 시행되어 사회주의 체제의 여성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노체트 정권은 여성정책의 측면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피노체트 정권은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탈 정치화와 동원화를 병행했다. 가부장적 질서를 국가이념화하고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군부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했다. 그러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의 강조-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가 반 독재운동 및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을 정치적 동원화의 요인으로 역전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상 각 체제에서의 여성정책은 체제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남성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만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권위주의 정권에 들어서는 오히려 '가부장제'가 하나의 국가이념으로서 확대되기까지 했다. 또한 각 정권에서의 여성관련 정부기구가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와 권익보다는 국가전체의 사회복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과정에서 반전되기 시작하여 민간정부 수립이후 국제적 흐름의 수용과 함께 양성평등과 정치참여의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수립 및 실현으로 초점을 변경해 가고 있다.

참고문헌

남승환, 「칠레경제성장의 정치경제: 피노체트 집권기의 경제성장을 중심

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민만식, 중남미의 정치와 경제, (서울: 일신사, 1971)
서병훈, '칠레의 민주화 - 헌 부대에 새술?'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8권 1호,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 (1995)
선우 건, '중남미 주요국가의 연금개혁비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호,(제2호부터 '이베로아메리카"로 논집명칭변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1999)
이남섭,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변동과 사회운동-칠레 도시주민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3권 1호, (1994,봄)
이순주, '라틴아메리카 민주화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 전통적 여성 역할 이미지를 통한 동원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1999)
Agosin, Marjorie. *Women, Politics and Society in Chile,* Working Paper #235. Michigan State Univ. Office of Wome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March 1993)
Beatty, Donald W. "Chile Enters a New Era," *Current History,* Vol.48, No.281, (Jan. 1965)
CEPAL, *Participación y Liderazg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dicadores de Género,* (Santiago:CEPAL, 1999)
Chuchryk, Patricia M. "Feminist Anti-Authoritatian Politics:The Role of Women's Organizations in Chilean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Feminism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edited by Jane S. Jaquette, (Boston: UNWIN HYMAN, 1989)
Chuchryk, Patricia M. *Feminist Anti-Authoritarian Politics: the Role of Women's Organizations in the Chilean Transition to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Association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Windser, Canada, (October 8-11, 1987)

Cleary, Eda. *"El Papel de las Mujeres en La Politica de Chile: Acerca del Proceso de Emancipación de Mujeres Chilenas durante la Dictadura Militar de Pinochet,"* Tesis Doctoral en La Universidad Aquisgrán de la República Federal de Alemania, (1987)

Galdames, Osvaldo Silva. *Breve Historia Contemporáneas de Chile,* (Me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5)

Fitzsimmons, Tracy. *Paradoxes of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 (Aug. 1995)

Fleet, Michel. *The Rise and Fall of Christian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Frohmann, Alicia and Valdés, Teresa. *"Democracy in the Country and in the Home":The Women's Movement in Chile,* Serie Estudios Sociales No.55, (Santiago: FLACSO, 1993)

Hausmann, Ricardo and Roberto Rigobón (eds.) *Government Spending and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Center For Research in Applied Economics,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93)

Hola, Eugenia y Gabriela Pischedda. *Mujeres, Poder y Polltica: Nuevas Tenciones para Viejas Estructuras,* (Santiago: Centro de Estudios de la Mujer, 1993)

Iniciativas para la Democracia, Educación y Acción Social, *Proyecto de Ley que modifica Diversos Cuerpos Legales con el objeto de Promover el Derecho de las Mujeres a Participar en la Vida Pública Nacional.*, (Santiago: Fundación Ideas, Octubre 1996)

Jaquette, Jane S., *Women's Movement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Some Unresolved Tensions,* Working paper Series, No.211, The Latin American Program,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94)

Kinsbruner, Jay. *A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73)

Loveman, Brian. *Chile: The Legacy of Hispanic Capitalism, 2nd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Mariana, Aylwin O.; Correa S., Sofía y Piñera E. Magdalena. *Percepción del Rol Político de la Mujer: Una Aproximación Histórica,* Documentos, (Santiago: Instituto Chileno de Estudios Humanísticos, 1986)

Miller, Francesca, " A Literature of Conscientization: Women in Latin America,"*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27, No.2. (1992)

Mujica, Patricio and Osvaldo Larrañaga, "Social Policies 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le" in *Government Spending and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edited by Ricardo Hausmann and Roberto Rigobón, Center For Research in Applied Economics,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93)

Natacha, Molina G., *Mujer y Desarrollo en Chile,* (Santiago: Instituto de la Mujer, Octubre 1992)

Oppenheim, Lois Hechet. *Politics in Chile: Democracy, Authritarianism, and the Search for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8)

Oxhorn, Philip. "Where Did All the Protesters Go?: Popular Movil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Chil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82, Vol.21, No.3, (Summer 1994)

SERNAM, *Mujeres, Cultura, y Desarrollo en el Chile de Los Noventa,* , Documento Preliminar, Beijing, (1995)

Silva D, Maria de la Luz. *"Mujer y Democracia en la Historia Politica Chilena"*, Ponencia para ser Presentada al Seminario "La Mujer y el Proceso de Redemocratización" realizado por el Instituto para el Nuevo chile en Santiago, (Diciembre de 1986)

Silva, Encina "*Gisela: La Familia y sus Valores Tradicionales,*" Cuaderno de Difusión, No.5, (Santiago: Secretaría Nacional de la Mujer, 1981)

Stephen, Lynn. *Women and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Power from Below,* (Austin: Univ. of Texas Pres, 1997)

Townsend, Camila. Refusing to Travel la via Chilena,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4, No.3, (1993)

Waylen, Georgia. "Rethink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rotest: Chile 1970-1990," *Political Studies*, Vol.40, (1992)

웹페이지

SERNAM Web Page, "Acerca del SERNAM," http://www.sernam.gov.cl/acerca -sernam.htm

SERNAM Web page, "Estructura Regional,"http://www.sernam.gov.cl/estruc_region.htm

SERNAM Web Page, "Plan de Igualdad de Oportunidades 2000-2010," http://www.sernam. gov.cl/plan_igualdad/plan_igualdad.htm.

U.S. Library of Congress Web Page, 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 (DOCID=c10041)